

- 주요 뉴스: 미국, 예고대로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부과. 중국에는 20% 추가 관세
 - 미국 2월 ISM 제조업 PMI,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신호도 발신
 -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월비 둔화. 2회의 추가 금리인하 예상
 - 중국 정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부과 검토. 비관세 조치도 시행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강행 발표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 관세 확정에 따른 우려 증폭 등으로 큰 폭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위관련주 강세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1%, 0.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예상치 하회한 2월 ISM 제조업 PMI 등이 원인
독일은 방위비 부담을 위한 특별기금 설립 방안 고려 등으로 9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56.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9.1원, 0.07% 하락). 한국 CDS 약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3/3일	2/28일	전일대비			3/3일	2/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849.7	5,954.5	-1.76%	국채 금리 10y	미국	4.16%	4.21%	-5bp
	유럽	563.13	557.19	+1.07%		독일	2.49%	2.41%	+9bp
	중국	3,316.9	3,320.9	-0.12%		영국	4.56%	4.48%	+7bp
	일본	37,785	37,156	+1.70%	CDS 5y	한국	29bp	29bp	-0bp
	한국	휴장	2,532.8	-		중국	47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106.55	107.61	-0.99%	위험 지표	EMBI+	-	372	-
	유로화	1.0487	1.0375	+1.08%		VIX	22.78	19.63	+16.05%
	엔화	149.50	150.63	+0.76%		WTI유	68.37	69.76	-1.99%
	위안화	7.2876	7.2784	-0.13%	원자재	구리	457.7	451.5	+1.37%
	원화	휴장	1,460.0	-		금	2,892.7	2,857.8	+1.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예고대로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부과. 중국에는 20%p 추가 관세
 -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내일(3/4일)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끝났다고 언급. 아울러 협상을 통해 관세 발효가 유예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지는 없다'고 대답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미국의 번영으로 실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4/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생산비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
 -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전쟁 행위가 같으며 공개적으로 비판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를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하원의 존슨 의장은 정부지출 축소 방안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바킨 총재는 경제 성장 지속을 예상하지만 소비와 주택시장 관련 일부 위험 신호가 존재한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ISM 제조업 PMI,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신호도 발신
 - 2월 ISM(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PMI는 50.3으로 전월(50.9) 및 예상치(50.8) 대비 낮은 수준. 시장에서는 관세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Capital Economics).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 등이 급락(55.1→48.6)했고, 투입가격 역시 전월비 큰 폭 상승(54.9→62.4)하며 '22년 6월 이후 최고치
 - 한편 1월 건설지출은 전월비 0.2% 감소.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는 52.7을 기록하여 전월(51.2) 대비 소폭 상승

■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월비 둔화. 2회의 추가 금리인하 예상

-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상승률은 2.4%로 전월(2.5%) 대비 떨어졌으나 예상치(2.3%) 상회. 월간 상승률은 0.5%로 전월(-0.3%) 대비 높은 수준. 근원 CPI도 연간 상승률이 둔화(2.7%→2.6%)되었고, 월간 상승률은 오름세(-0.9%→-0.6%) 전환. 특히 서비스 부문도 전월비 하락(3.9%→3.7%)
-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ECB의 금리인하를 뒷받침한다고 평가. 다만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내 2회의 금리인하를 예상(Bloomberg Economics)

■ S&P Ratings,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유동성 위험 감소 등을 반영

-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이번 결정은 재정 여건 개선 및 유동성 위험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또한 관세 관련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도 제한적이라고 평가

■ 중국 정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부과 검토. 비관세 조치도 시행할 전망

-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농산물 관세 부과를 고려. 미국은 대두, 밀 등 중국의 주요 곡물 공급국인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에 관세를 부과

■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출 수요 등이 회복

- 2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8을 기록, 전월(50.1) 대비 상승하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시장에서는 수출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일부 산업에서의 기술 혁신이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OPEC+, 4월부터 원유 감산 규모 축소. 구체적인 규모는 상황을 반영하여 조절

- 예정대로 4월부터 기존의 감산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 다만 구체적인 감산 축소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 트럼프 정책만의 문제는 아닐 소리 - Financial Times

(It's not all Trump's fault)

- 최근 소비심리 악화, 실질 소비지출(PCE) 감소 등의 원인으로 트럼프 정책을 지목하는 시각이 지배적.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불안이 고조. 다만 이러한 상황을 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소리. 이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이유에 근거
- 첫째, 경제성장률이 그동안 장기 추세를 상회했기에 이제는 통상적 수준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둘째, 1월 PCE 감소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셋째, 최근 소형주 주가 하락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전에 불과. 넷째, 빅테크의 주가 부진은 팬데믹 이후 과도한 상승에 따른 조정 국면으로 해석

■ 미국 경제의 향방, 주식시장 움직임에 좌우될 가능성 - 블룸버그

(Where the stock market goes, the economy will follow)

- 미국 경제는 주가 상승에 따른 부유층 소비가 핵심 성장 동력. 지난 1년간 고소득층 소비는 12%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했는데, 이는 임금 상승이 아닌 주가 상승으로 설명이 가능. 같은 기간 미국 가계가 보유한 주식 및 뮤추얼펀드 가치는 10조 달러 증가했으며, 이 중 87%가 상위 10%의 부유층에 집중
- 증시가 소비를 지지하는 모습은 '00년대 중반 주택시장 호황 기간과 유사하지만 혜택이 일부 계층에 국한. 주가가 급락할 경우 부유층 소비가 위축되어 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붕괴 때와 달리 금융시스템 위험은 낮아 얇은 침체에 그칠 전망. 이후 금리 하락으로 주택 소유자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 소비 진작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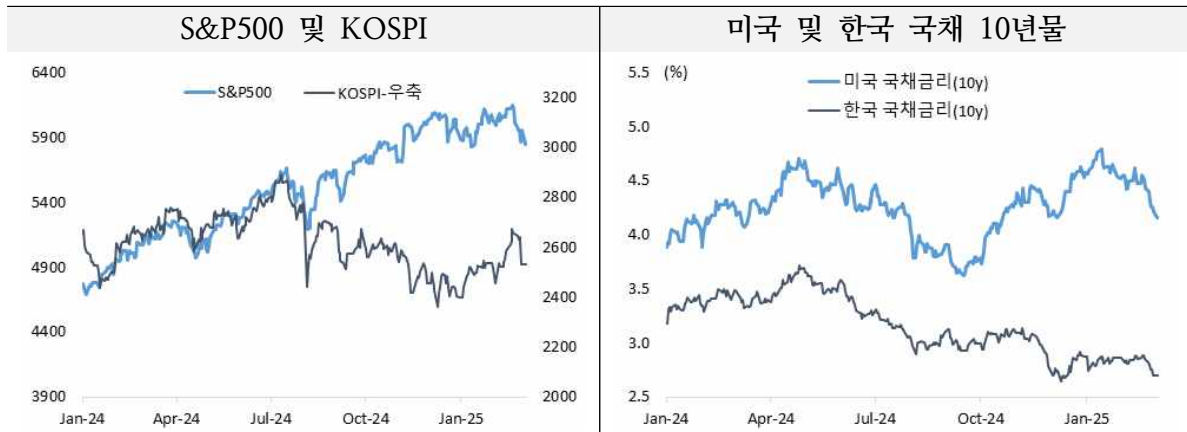
■ 미국 증시의 과도한 기술주 집중, 버블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How big is the stock market's America bubble?)

- 미국 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세계 증시에서 미국 증시의 비중도 급격히 확대. 일례로 S&P500지수는 '10년 이후 연평균 14%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형 기술주가 이를 주도. 그러나 최근 기술주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의 불안감이 고조
- 특히 S&P500 기업의 시가 총액에서 Magnificent 7의 비중이 1/3에 이르는 등 과도한 집중도로 우려가 증폭. 일각에서는 미국 주가가 '80년대 일본 버블, '00년대 닷컴 버블과 같이 일시적 호황 이후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

- **아시아 통화, 트럼프 관세 확대와 금리인하 등으로 약세 국면 재개될 우려 - 블룸버그**
(Asian Currencies Face Growing Risks With Trump's China Tariffs)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대두. 이미 지난 주 미국의 관세 우려로 태국의 바트화 및 한국의 원화 등은 약 2%의 가치 하락을 시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단순히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는 평가가 우려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더해 한국과 태국 등 일부 아시아 신흥국이 금리인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해당국의 통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경기의 둔화가 현실화되면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약세 압력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
- **유로존의 對美 정책 대응, 미국 기업 공공입찰 배제규제 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 - 블룸버그**
(Europe Needs Nerves of Steel Against Trade Coercion)
- **중국 주가의 회복세,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도 자국 기업의 기술 혁신에 기인 - 블룸버그**
(When Even China Markets Start to Ignore Trump)
- **사모펀드의 투자, M&A 부문 침체에 따른 IPO 전략 변화 요구 - Financial Times**
(Private equity needs a new IPO play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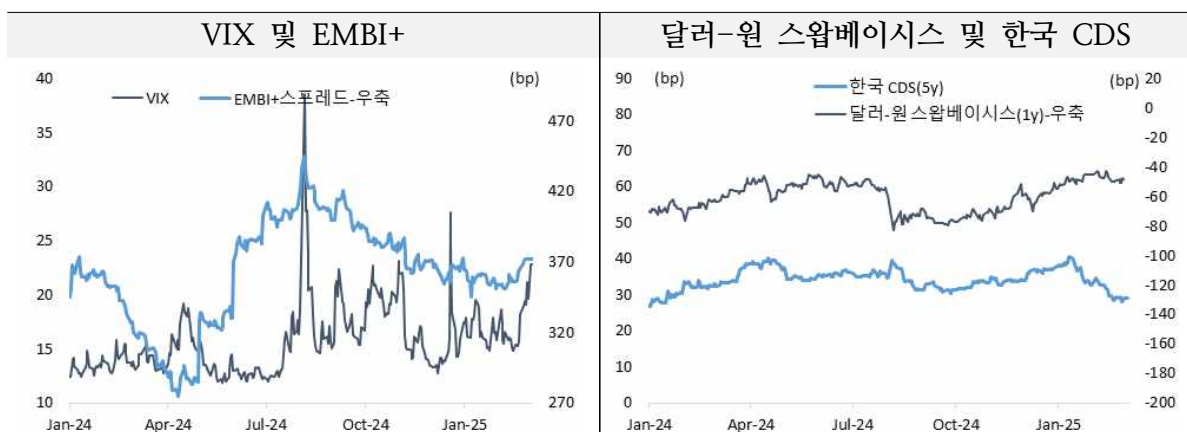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